

군산시, 국산보리로 수제맥주 대표도시 발돋움

시,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맥아 가공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맥아산업 발전 포럼 개최도...하반기 제조시설 구축 제품 출시

군산시가 국산맥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는 등 수제맥주 대표도시로의 기반조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김두호)과 (사)한국수제맥주협회(회장 임성빈) 등 유관기관과 국산 맥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국산맥아 산업화와 수제맥주 상품화를 위해 제품개발 및 양조기술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약속했다.

군산시는 국내 수제맥주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17년부터 수제맥주원료를 국산화하는 맥아 가공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농업인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맥주 양조용 국산맥아 제조시설을 구축해 올 하반기 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협약식과 함께 국산 맥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포럼도 진행됐다.

포럼은 수제맥주의 발전방향, 국내 맥주보리 품종육성, 국산맥아 산업화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맥아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산 맥아 소비확대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정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전국 최초로 국산맥아로 상용화에 성공해 군산시 수제맥주 대표 도시가 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지난 29일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임성빈 (사)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맥아 산업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발전방안 포럼이 개최됐다. <군산시 제공>



고창북고등학교에 '공자학당' 문열어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 500여명 개원식 참가

고창북고등학교에서 최근 중국교육부가 지원하는 '공자학당' 개원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박상철 호남대 총장과 쑤시엔 위(孫繼軒) 주 광주 중국 총영사, 유기상 고창군수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 공자학당은 중국교육부 산하 기구인 국가한반(國家漢辦)이 중국어 교육 확산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예산과 중국어 원어민 교사 등을 지원한다.

고창북고 재학생들과 지역 주민은 이곳에서 중국어 교육을 받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학교는 올해 전북도 교육청 선정 '중국어 진로 중점학교'로 지정됐으며 중국어

공인능력시험인 HSK 고사장을 운영하는 등 중국어 교육에 힘써왔다.

전삼식 고창북고 교장은 "중국어는 무역과 외교,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학생들의 중국어 어학 능력을 향상하고 중국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전북도, '공동육아 나눔터' 10곳으로 확대

하반기 익산·정읍·남원·장수 등 4곳 추가 운영

전북도는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연말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 도내 공동육아 나눔터는 전주, 익산, 완주, 무주, 군산, 김제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다.

하반기까지 익산, 정읍, 남원, 장수 등 4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보살피고 함께 모여 정보도 교류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위한 교구

와 도구가 비치되며 빌려갈 수도 있다.

전문가를 배치해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웃들이 육아 부담을 나누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14개 시·군 모두에 최소 1개씩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선정

국비 49억 확보...농촌자원공유센터 조성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49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4년 동안 총 70억원을 투입해 서동농촌테마공원에 농촌자원공유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농촌체험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활동하게 된다.

또 각 권역지구를 특화개발하기 위한 시설보강과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주민 역

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전자상거래와 연계해 중·소농의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농촌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익산시와 마을만들기협의회, 농촌활력지원센터 등 농촌 민간조직의 협력을 사업 추진하도록 돼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장흥풍력발전소' 허가 재신청해야 하나

전남도 행정심판 인용, 불허가 번복결정으로 새국면

전남도가 '장흥풍력발전소'에 대해 개발논리를 내세워 행정심판 인용결정을 내려 풍력발전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주)한국서부발전이 장흥군의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 일원 8만2229㎡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인용결정했다.

도는 "자연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이 우선이다"며 "장흥풍력발전소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풍력발전 허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허가를 반대해온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위원장 김선홍)는 "도 행정심판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 차원에서 '집행정

지 처분' 요구와 함께 반대집회를 열어 결사적으로 저지운동을 펴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일단 도 행정심판 결과에는 승복한다"면서도 "지난 2017년 제정된 '장흥군관리계획' 조례 근거로 4ha(1만 2000평)당 풍력발전 1기 이하만 허가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흥풍력발전소 추진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2010년 11월 장흥군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발전단지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7년 6월에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영산강환경영역청, 문화재청, 산림청 등 복합민원)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3차례 보완 요구 과정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불허가 처분이 내려져 갈등을 빚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무안군, 월 3회 '양파데이' 소비확산 주력

양파의 고장 무안군이 조생양파 출하 시기에 맞춰 양파와 배추, 무, 시금치 등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범군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월부터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갈수록 뜸해진 포전거래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양파 등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매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김산 무안군수 주재로 지난 1월과 3월 지역농협장들과 잇따라

농정정책 간담회를 갖고 양파 등 지역농산물 판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자리에서 농협이 조생양파 수확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지역농산물을 우선 소비해 나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2일 전국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무안군 연합회 한마음대회에서 판촉행사와 우리농산물 애용하기 다짐대회를 여는 등 소비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무안=임동천 기자 idh@

세월글 "고객 최우선주의 실현 행복농촌 온힘"

운영일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고객 최우선주의 실현으로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에 부임한 운영일(53) 지사장은 "반복되는 가뭄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운 지사장은 또 "2030세대 청년농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을 만드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례 출신인 운 지사장은 전남대학교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공사에 입사해 영산강사업단 공무원, 무안신안지사 수자원관리부장, 진도지사과 나주지사 지역개발부장, 전남지역본부 기획관리 부장을 역임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7500만원(일시불)
- 문의. 010-6834-7400